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9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공동협력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음 11월 20일) 제36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디지털 교육 新거점 '첫 발'

## SW 미래채움 전북센터, 남원에 개소… 유니트리사 H1 · 최첨단 기기 등 배치
## 내년부터 분야별 전담 전문강사 배치, 단계별 학습 지원… 문제 해결능력 배양

전북특별자치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원시는 19일, 남원에서 SW미래채움 전북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은 최경식 남원시장,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남원시의회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남원에 문을 연 SW미래채움 전북센터가 지역 아이들에게 꿈과 창의력을 심어주는 디지털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쳤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남원시는 19일, 남원에서 SW미래채움 전북센터 개소식을 개최하며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거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이정린·임종명 도의원,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인성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 본부장, 박영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사, 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센터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SW미래채움 전북센터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미래채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전북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원 어울림 도서관 부속건물에 조성됐다.

센터는 △1층 인공지능·로봇 체험존 △2층 메타버스 체험존 및 다목적실 △3층 크리에이터 공간·상상 제작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들이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유니트리사의 연구용 휴머노이드 로봇(H1)을 비롯해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최첨단 기기 등 22종의 체험시설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각 분야별 전담 전문강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기초부터 심화단계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실생활과 연계한 SW·AI 교육을 통해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SW미래채움 사업은 그간 도내 시·군 학교 1만4,626명의 초·중등 학생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했으며, 134명의 SW 강사를 양성하고 104명의 강사를 채용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지역 산업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남원시 교육특구와 연계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의 씨앗을 심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는 교육특구와 연계해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로 꿈을 키우고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특히 SW미래채움 전북센터가 초·중등학생 뿐만 아니라 누구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배우고 디지털 취·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허브로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SW미래채움 전북센터는 전북지역의 디지털 교육 거점으로,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센터가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전북의 디지털 미래를 이끄는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SW미래채움 사업은 총사업비 98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자치도,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디지털융합센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플레이코딩 등과 함께 전북을 디지털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남원=김기두 기자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홍보대사 위촉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을 빛낸 '체육 영웅'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박성현 전 양궁 국가대표, 김유정 FIFA 국제심판, 정소영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김관영 도지사, 유인탁 전 레슬링 국가대표, 김동문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최병관 행정부지사)

# 전북 체육 영웅들, 올림픽 유치 지원사격

## 자치도, 김유정 · 김동문 · 정소영 · 박성현 · 유인탁 · 임미경 등 6명 홍보대사 위촉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을 빛낸 '체육 영웅'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홍보대사는 FIFA 국제심판 김유정,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김동문·정소영, 전 양궁 국가대표 박성현, 전 레슬링 국가대표 유인탁, 전 핸드볼 국가대표 임미경 등 6명이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이들 홍보대사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들은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재능기부 형식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붐 업 조성, 유치 도시 결정 평가 대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우리 전북의 자랑스러운 얼굴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분들"이라며, "다시 한번 빛나는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전북자치도가 2036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도 대한체육회의 실사 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과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2036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도민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성현 전북자치도청 양궁팀 감독은 "전북의 딸로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올림픽이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대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 올 전주지역 유아 2만7000여명 유아숲 체험

### 시, 3~11월 산림교육 프로그램 마무리

전주지역 유아 2만7,000여명이 올 한해 유아숲체험원에서 자연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인후공원·혁신·학산·서곡·건지·바위백이 등 전주지역 6개 유아숲체험원에서 5~7세 유아 2만7,150명을 대상으로 총 866회의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은 평일 정기반과 수시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기반(월·화·목·금 오전/오후)의 경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참여기관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수시반(수요일 오전/오후)의 경우 정기반에 선정되지 못한 기관이나 단기 참여를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선발된다.

유아숲체험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족 단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특히 시는 올해 각 유아숲체험원에 전문성을 갖춘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를 2명씩 배치해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1억2,000만원을 투입해 혁신·건지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재정비 사업도 추진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유아숲체험원 내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으며, 혁신 유아숲에는 트리하우스 등 시설물 7종을 신규 설치했다. 또, 건지 유아숲에는 통나무건너기 등 놀이시설 8종을 설치·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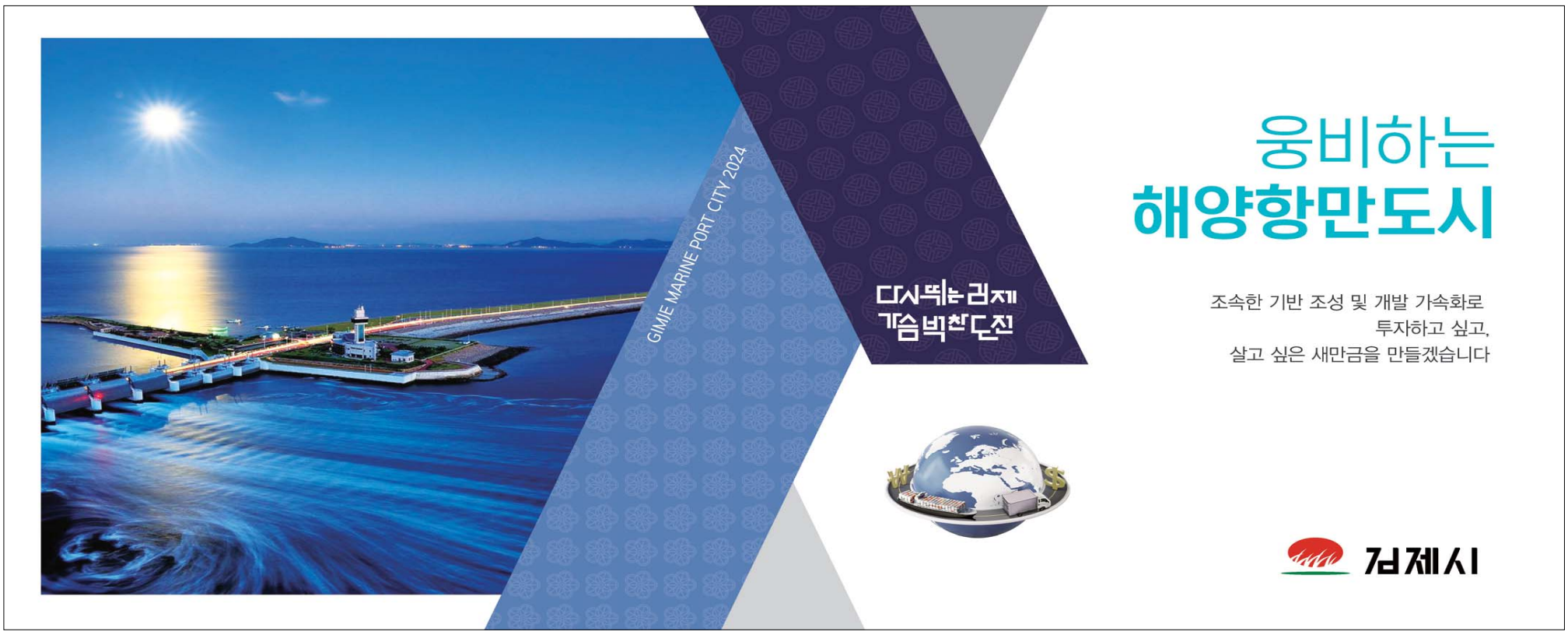
/김옥기 기자

## 남원시, 스마트 경로당 활용 비대면 진료서비스 구축 방안 논의

남원시는 19일 오후 전국 최초로 '스마트 경로당 활용 비대면 진료 서비스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스마트 경로당 활용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행 의료법 및 제도로 인해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청취했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ICT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원시는 올해 과기정통부 스마트 경로당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41억 7,000만원을 확보해 495개소 경로당에 양방향 화상회의시스템과 디지털 헬스케어사업 및 생활안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지역 내 병의원 의료진 간담회 및 부서 간 업무 협업으로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절차 등 지역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